

新入生 實態調查 研究 (1972년도)

高明奎

.....목 차.....

I. 序 言	(4) 處理方法
(1) 調查目的	Ⅲ. 結果 및 解釋
(2) 調查問題	Ⅳ 結 言
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要 約
(1) 調查對象	(2) 提 言
(2) 調查方法	(3) 參考文獻
(3) 調查日 및 그 處理時日	(4) Summary

I. 序 言

(1) 調查目的

入試工夫 등으로 무겁게 짜여진 高等學校에서 比較的 自律性이 높은 大學에 새로히 入學하는 新入生들은 生活環境이 달라지는데서 여러가지 適應上의 問題를 안게 된다.

本 調査는 이러한 新入生들에 關한 各種 資料와 知識을 蒐集하고 이를 分析하여 그 結果를 基礎로 그들을 理解하고, 大學社會라는 새로운 環境에 쉽게 適應토록 도움을 주고, 또한 그들이 當面하고 있는 現實인 問題, 앞으로의 大學生活에서 일어날 수 있는 問題들을 豫見하여 보다 學生指導를 科學的으로 遂行하기 爲한 基礎的 資料로 삼기 위함은 勿論, 各種 教育計劃 樹立에 基礎 參考資料로 活用하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新入生에게 效率인 教育和 生活指導를 베풀기 위하여서는, 오늘 날과 같이 急變하는 젊은이들을 正確하고 올바르게 理解하여야 만 한다. 이런 見地에서 볼때, 每年 新入生에 關한 各種 資料와 問題點을 調査把握하는 것은 必要 不可缺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調查問題

本 調査의 問題領域은 다음과 같은 事項을 包含시켰다.

1. 大學入學에 關한 動機問題
2. 學科選擇에 關한 問題
3. 轉科에 關한 問題

4. 가장 切實한 個人問題
5. 課外活動에 關한 問題
6. 通學에 關한 問題
7. 現實參與와 우리나라의 將來問題
8. 아르바이트에 關한 問題
9. 將來의 職業問題
10. 本 大學에 對한 要望事項

以上 10個 領域에 걸친 問題를 中心으로 20個의 問項을 提示했다.

Ⅱ.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查對象

本 調查의 對象은 1972年度 新入生 全員으로 했으나, 實際로 얻어진 資料는 全體의 71.2%이다.

學部別 및 全體別 回收率은 <표-A>와 같다.

<표-A> 質問紙 標集의 構成內容 (72. 3. 10. 현재)

학부별	구분 과별	신입생 수	피조사자 수	%
법 문 학 부	법	15	11	84.3
	경 영	15	11	
	국 문	15	12	
	영 교	20	17	
	수 교	30	27	
	체 교	30	25	
	가 정 교	15	15	
계	140	118		
농 학 부	농	20	16	76.0
	원 예	15	12	
	축 산	20	16	
	수 의	20	13	
	계	75	57	
수 산 학 부	어 로	30	10	50.0
	제 조	20	11	
	증 식	30	19	
	계	80	40	
총	계	295	215	71.2

(2) 調査方法

調査에 使用한 方法은 4×6倍版 크기의 罫지 2面에 印刷된 綜合說問紙를 利用하였고, Orientation 期間中에 大講堂에서 實施 回收하였다.

(3) 調査日 및 그 處理時日

調査日字 : 1972年 3月10日

調査結果 處理日字 : 1972年11月20日~12月20日

(4) 處理方法

資料는 모두 百分率(%) 統計方法에 依해 處理되었고, 또한 學部別, 全證別로 分析處理되었다.

Ⅲ. 結果 및 解釋

1. 大學入學에 關한 動機問題

이 問題에서는 學生들이 大學에 入學한 動機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아, 그 動機를 알아보는 問題를 包含시켰다.

(1) 大學入學의 動機

新入生들이 本 大學에 入學한 動機는 무엇인가에 對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1-1> 大學入學의 動機

항목	學部別				전 체
	법문학부	농 학 부	수산학부		
학문연구를 위하여	13.6	14.0	15.0	13.9	
지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30.5	29.8	15.0	27.4	
국가발전에 공헌할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15.2	14.0	10.0	13.9	
장래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24.6	22.8	30.0	25.1	
결혼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1.6	1.8	10.0	3.2	
국립대학이므로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13.6	7.0	12.5	11.6	
대학예비시험의 효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0.8	10.5	2.5	3.7	
무 응 답			5.0	0.9	
N	118	57	40	215	

※N=사례수, 모든 항목에 속한 숫자는 %임

<표1-1>에 依해서 新入生들의 全體의인 反應傾向을 보면 “知性人으로서 人格을 갖추기 위하여”가 27.4%로 가장 많고, 다음이 “將來 職業生活에 대한 準備를 위하여”가 25.1%, 그리고 “學問研究를 위하여”와 “國家發展에 貢獻할 指導者가 되기 위하여”가 각각 13.9%의 順位로 나타났다.

따라서 新入生들의 大部分은 大學生活을 通하여 “個人의 人格의인 完成” “將來 職業生活의 準備” 및 “學問研究와 國家發展에 貢獻할 指導者가 되기 위하여” 등이 다른 條件보다 入學動機에 커다란 影響을 주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들 나름대로 大學教育의 窮極의인 目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反應의 比率로 미루어 볼 때, 大學生活을 通한 “知性人으로서 人格完成”과 “將來 職業生活에 대한 準備”가 크게 關心의 對象이 된 나머지, “專門의인 學術研究”를 위하고 “國家發展에 貢獻할 指導者 養成”을 위한 大學教育의 特殊성과 專門性은 약간 疎外되고 있다고 하겠다.

學部別로 보면, 學部の 性格에 따라 그 特性을 달리하고 있는데, 法文學部和 農學部에서는 “知性人으로서 人格을 갖추기 위하여” 入學했다는 傾向이 각각 30.5%, 29.8%로 他學部보다 顯著한 現象을 보이는 反面에, 水產學部에서는 “將來 職業生活에 대한 準備 (30.0%)가 他學部보다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는 點은, 學部の 性格에 따라 反應을 달리하고 있는 現象이라 하겠다.

2. 學科選擇에 關한 問題

學科選擇에 關한 問題로서는 學科志望 順位 (1, 2志望關係)와 學科選擇의 基準, 學科選擇時의 助言有無, 學科選擇時의 助言者에 대한 問題를 包含시켰다.

(1) 學科志望 關係

入學當時 學科志望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2-1>

學科志望 關係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1 지망		66.1	40.4	37.5	53.7
2 지망		33.0	57.9	57.5	44.2
무응답		0.8	1.8	5.0	1.8
N		118	57	40	215

<표2-1>에 依해서 學科志望 關係를 全體別로 보면, 過半數가 1志望으로 入學했고, 4割以上 (44.2%)이 2志望으로 入學했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1志望의 學生과 2志望의 學生의 比率의 差異는 9.5%로서, 1割 程度이다.

學部別로 보면 1志望으로 入學한 學生의 比率은 法文學部 (66.1%) 가 他 學部보다 훨씬 높은 反面에, 2志望으로 入學한 比率은 農學部 (57.9%), 水產學部 (57.5%) 가 높다.

本 大學은 後期라서 前期에 合格되지 못한 學生들이 2次 志望으로 들어 오는데, 그 比率은 44.2%나 된다. 이런 境遇, 이들이 앞으로 大學生活을 해나감에 있어서 學科適應의 問題가 크게 擡頭될 것이라는 것을 充分히 豫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昨年 度에 新入生 全體를 對象으로 調查한 結果⁽¹⁾와 比較해보면, 5.8%나 減少되고 있다.

(2) 學科選擇의 基準

學科의 選擇基準에 대한 調查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2-2> 學科選擇의 基準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적성 및 흥미에 알맞기 때문에		57.6	26.3	25.0	43.3
가정환경 및 경제상태를 고려해서		10.2	8.8	2.5	8.4
장래의 직업선택을 고려해서		16.1	8.8	22.5	15.3
고교성적(실력)을 고려해서		2.5	1.8		1.8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7.5	8.8	2.5	6.9
미개척 분야의 학문이므로		3.3	15.8	27.5	11.1
기 타		1.6	28.0	20.0	12.1
무 응 답		0.8	1.8		0.9
N		118	57	40	215

<표2-2>에 依하여 學科選擇의 基準을 全體적으로 보면, “適性 및 興味에 알맞기 때문에” (43.3%) 가 가장 많고, 다음이 “將來의 職業選擇을 考慮해서” (15.3%), “其他” (12.1%), 그리고 “未開拓分野의 學問이므로” (11.1%)의 順位로 나타났다. “其他”의 內容으로서는 어찌다가 選擇하게 됐든가, 通學距離上 選擇했다든가, 마음에 드는 學科가 없어 選擇했다든가 等等을 들고 있다.

따라서 6割程度의 學生들은 本人의 適性·興味·卒業後의 實用性等이 學科選擇의 基準으로 重視되는 傾向이다.

學部別로 보면, 個人的 “適성과 興味”를 크게 重視하여 入學한 學部는 法文學部로서 6割程度의 學生들이 本人中心에서 學科가 選擇되고 있고, 農學部에서는 “其他” (28.0%)가 學科選擇에 크게 影響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水產學部에서는 “卒業後의 實用性” (22.5%) 이라든가, “未開拓分野의 學問” (27.5%) 이라든가의 點을 考慮한 것

(註1) 고명규; 신입생의 실태조사, 학생지도제1집. (제주대학 학생지도연구소, 1971)P.21

으로 보아, 發達途上國에 있어서의 水産業의 밝은 展望이 學科選擇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學部의 性格에 따라 學生들의 學科選擇의 動機가 多少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學科選擇이 “父母의 勸誘에 依해서” (6.9%) 選擇되어 完全히 他意에 依하여 決定되었다면 앞으로 大學生活을 하는 동안 學科適應 問題의 可能性을 가질 수 있는 要因이라 볼 수 있는데, “家庭環境과 經濟狀態를 考慮하여” 選擇하게 된 境遇 (8.4%) 또한 이와 같은 問題를 內包할 可能性이 많다고 할 수 있다. “家庭環境 및 經濟狀態를 考慮한 傾向은 法文學部 (10.2%) 가 높다.

(3) 學科選擇時的 他人의 助言有無

이들 新入生들은 學科選擇時에 他人의 助言을 받아 選擇하였는가의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2-3>

學科選擇時的 助言有無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그렇다		27.1	35.1	20.0	27.9
그렇지 않다		72.9	64.9	77.5	71.6
무응답				2.5	0.5
N		118	57	40	215

<표2-3>에 依하여 學科選擇時에 “他人의 助言을 받았다” 는 學生들의 反應의 比率을 全體적으로 보면, 27.9%에 該當하는 60名이고, “他人의 助言을 받지 않았다” 는 反應은 71.6%인 154名에 이른다.

學部別로 보면 農學部の 學生들 (35.1%) 이 學科選擇時에 他人의 助言을 받았다는 反應이 높은 反面에, 法·水産學部 (72.9%, 77.5%) 의 學生들은 他人의 助言을 받지않고 學科를 選擇한 傾向이 높다.

(4) 萬一 助言을 받아 選擇하였다면 누구의 助言

그러면, 萬一 助言을 받아 選擇하였다면, 누구의 助言을 많이 받았는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2-4>에 依하여 全體적으로 보면, 學科選擇時 助言은 主로 첫째 家族員 (38.3%), 둘째 本人 (28.3%), 셋째 高校教師 (14.1%) 의 順位이다.

學部別로 보면 家族員의 影響인 境遇, 法文學部 (43.5%) 가 보다 높은 傾向인데, 農

學部 (37.5%) 도 다음으로 높다. 本人의 境遇, 水産學部 (61.0%) 가 他學部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反應의 比率를 나타내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표2-4> 助言을 받아 選擇하였다면 누구의 助言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가족원 (부모형제)		43.5	37.5	22.2	38.3
고등학교 교사		21.0	10.0		14.1
친족		9.6	5.0	5.5	7.5
친우		9.6	15.0	11.1	11.6
기타 (본인)		16.1	32.5	61.0	28.3
N		62	40	18	120

※合計가 많은 것은 二重對答者가 있기 때문임

3. 轉科에 關한 問題

여기에서는 轉科與否와 轉科 (學) 를 한다면 그 理由는 무엇인가 等에 關한 問題를 包含시켰다.

(1) 轉科 (學) 與否

모든 與件이 허락한다면 轉科 (學) 하겠는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3-1> 轉科 (學) 與否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하겠다		31.4	63.2	60.0	45.1
하지 않겠다		38.1	12.3	15.0	26.9
생각한바 없다		29.7	22.8	20.0	26.0
무응답		0.8	1.8	5.0	1.8
N		118	57	40	215

<표3-1>에 依하여 全體的으로 45.1%인 97명의 學生들이 轉科 (學) 를 希望하고 있다. 이 反應의 比率는 기년도 新入生 實態調査⁽²⁾와 比較하면 2.0%나 높다.

學部別로 보면, 農·水産學部 (63.2%, 60.0%) 의 學生들이 法文學部 (31.4%) 의 學生들 보다 轉科 (學) 를 希望하는 傾向이 훨씬 높다.

(註2) 고명규외, 前掲書. P. 23

이러한 實情으로 보아, 앞으로 學科不適應에서 오는 轉科問題는 所重히 論議될 問題거리라고 볼 수 있다.

(2) 轉科(學)하려는 理由

그러면, 도대체 轉科(學)하려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3-2> 轉科(學)하려는 理由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29.7	66.7	37.5	45.4
졸업후 실용성이 적기 때문에		13.5	11.1	16.7	13.4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2.7	5.6	4.2	4.1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2.7	2.8		2.1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2.7	2.8	8.3	4.1
기타		2.7	2.8	8.3	4.1
무응답		45.9	8.3	25.0	26.8
N		37	36	24	97

轉科하겠다는 45.1%에 該當하는 97명에 대하여 그 理由를 알아본 것이 <표3-2>인데, 이에 依하여 全體적으로 그 理由를 보면, 첫째 “適性和 興味에 맞지 않아서” (45.4%), 둘째 無應答을 除外하던 “卒業後 實用성이 적기 때문에” (13.4%)를 뚜렷한 理由로 들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適性和 興味에 맞지 않아서” 轉科하겠다는 學生은 66.7%로서 農學部가 보다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事實로 미루어 보면, 適性和 興味에 맞지 않아서, 또는 마음에 드는 學科가 없어서나든지, 將來 卒業後의 職業問題와 關連하여 轉科(學)를 希望하는 傾向임을 알 수 있다.

4. 가장 切實한 個人問題

이 問題領域에서는 最近 學生個人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切實한 問題들의 樣相과, 그 個人的 問題를 솔직히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있다면 누구와 相議하고 싶은가, 그리고 高等學校때의 相談經驗의 有無等を 그 內容으로 包含시켰 보았다.

(1) 現在 當面하고 있는 切實한 個人問題

現在 新入生들이 當面하고 있는 切實한 問題를 11개의 범주에서 3개를 選擇케 한 反

應에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4-1>

現在 當面한 가장 切實한 個人問題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건강문제		12.7	10.4	11.7	11.9
경제문제		17.5	15.2	13.3	16.1
병역문제		7.9	10.4	11.7	9.3
성격문제		8.2	12.0	5.8	8.8
인간관계 문제		9.0	13.5	16.7	11.6
가정문제		5.4	2.2	5.0	4.5
장래 직업문제		11.3	14.6	15.0	12.9
학교생활 적응문제		9.0	5.3	10.0	8.2
이성·결혼 문제		2.8	2.9	6.6	3.6
여가선용 문제		6.8	7.2	3.3	6.0
도덕·종교 문제		1.4	1.2	0.8	1.2
기 타		1.1	1.7		1.1
무응답		6.8	3.4		4.6
N		354	171	120	645

<표4-1>에 의하여 現在 가장 切實한 問題領域의 順位를 보면, 첫째 經濟問題 (16.1%), 둘째 將來 職業問題 (12.9%), 셋째 健康問題 (11.9%) 및 人間關係問題 (11.6%) 등으로 그 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 外에 道德·宗教問題 (1.2%)는 比較的 큰 問題性을 內包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學部別로 보아도, 가장 큰 問題는 水產學部를 除外하면 亦是 全體적으로 擡頭되고 있는 經濟的 問題가 深刻性을 띄고 있는 것 같다.

法文學部는 첫째 經濟問題 (17.5%), 둘째 健康問題 (12.7%), 셋째 將來 職業問題 (11.3%), 넷째 人間關係問題·學校生活 適應問題 (9.0%)의 順位로 그 樣相들을 보이고 있다.

農學部는 첫째의 順位가 法文學부와 같은 것 外에는 性格이 좀 다르게, 첫째 經濟問題 (15.2%), 둘째 將來 職業問題 (14.6%), 셋째 人間關係 問題 (13.5%), 넷째 性格 問題 (12.0%)의 順位이다.

水產學部는 다른 學部와는 性格이 좀 다르게, 첫째 人間關係 問題 (16.7%), 둘째 將來 職業問題 (15.0%), 셋째 經濟問題 (13.3%), 넷째 健康 및 兵役問題 (11.7%)의 順位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學部에 比하여 人間關係의 問題性이 多少 異なる 것 같다. 이는 特히 漁撈學科에 入學한 學生의 大部分이 他道の 出身이기 때문에, 새로운

環境과 對人關係에서 適應하고 安定感을 가져오는다는 時日이 걸리기 때문에, 當分間 人間關係의 問題가 關心事로 됨을 推察할 수 있다.

이와같이 學部에 따라 問題의 方向이나 濃度가 다른 모습들을 參酌하여, 그 問題의 原因을 規明하고 解決해 줌으로써 보다 밝고 明朗한 大學生活을 해나갈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는 일이 追後의 課題라 할 수 있다.

(2) 切實한 問題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有無

이러한 切實한 個人的 問題를 솔직히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4-2> 切實한 問題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有無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있다		73.7	73.7	80.0	74.9
없다		24.6	26.3	20.0	24.2
무응답		1.6			0.9
N		118	57	40	215

<표4-2> 에 依하면, 切實한 個人的 問題를 솔직히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 가 全體 調査對象者中 74.9%인 161명이고, “없다” 가 24.2%에 該當하는 52명이다.

(3) 個人的 問題를 相議하고 싶은 對象

그렇다면, 萬一 個人的 問題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相議하고 싶은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4-3> 個人的 問題를 相議하고 싶은 對象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부		4.8	4.8	2.3	4.4
모		4.8	3.2		3.5
형		12.1	4.8	20.9	11.8
누나		10.7		6.9	7.0
친우		35.5	59.7	32.6	41.5
지도교수		21.7	14.5	18.6	19.2
학교상담실		4.0	8.1	4.6	5.2
친족			1.6	2.3	0.8
기타		6.4	3.2	11.6	6.5
N		124	62	43	229

※合計가 많은 것은 二重 對答者가 있기 때문이다.

<표4-3>에 依하면, 自身들의 複雜한 個人的 問題가 生길 때 마음놓고 相議하고 싶은 對象에 대하여, “親友”가 4割로서 가장 많이 擇하고, 다음이 “指導教授”가 2割程度, 그 다음이 “兄”이 1割 남짓 하다.

어려운 問題가 생기게 될 때, 가장 虛心坦蕩하게 對話를 나눌 수 있는 對象은 같은 經驗을 하는데서 가장 理解·同情을 얻을 수 있는 같은 年令層의 親友라는 것을 알 수 있고, 學校에서는 學年擔當 指導教授, 家族間에는 같은 同性끼리 가까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學校相談室은 5.2%로서, 學校相談室의 機能 및 카운슬러에 대한 認識이 否足한 것이 오늘의 實情인 것 같다.

여기에서 미루어 보아, 學生들로 하여금 賢明한 親友를 사귈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함과 同時에, 本人 스스로 좋은 親舊가 될 수 있는 資質을 키워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學年擔當 指導教授制가 더욱 強化되여 個人的인 接觸에서 그들의 問題解決에 도움을 줄 때 보람 있는 大學生活이 期約되리라 본다. 勿論, 앞으로 學生指導研究所의 PR도 繼續되어야 되 겠다.

(4) 高校時 學校相談室을 利用한 經驗有無

이런 境遇, 高等學校때 個人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學校相談室을 利用한 적이 있는 냐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4-4>

學校相談室을 利用한 經驗有無

항목	학부별				전 체
	법문학부	농 학 부	수산학부		
한번 있다	32.2	47.4	40.0	37.7	
두세번 있다	22.9	22.8	7.5	20.0	
여러번 있다	11.9	3.5	22.5	11.6	
전혀 없다	18.6	14.0	15.0	16.7	
무응답	14.4	12.3	15.0	13.9	
N	118	57	40	215	

<표4-4>에 依하면, 高等學校時節에 個人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學校相談室을 利用한 적에 대하여, “한번 있다”가 37.7%로 가장 많고, 다음이 “두세번 있다”가 20.0%, 그리고 “전혀 없다”가 16.7%의 順位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번 以上 學校相談室을 利用한 學生은 全體의 69.3%의 學生인데, 高等學校過程에서 進學·就職問題等 進路問題를 中心으로 性格·異性問題等 여러 雜多한 問題에 當面하여, 이런 境遇 카운슬러와의 相談經驗을 가졌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傾向은 앞의

<표4-3>에서 1割以內의 學生들만이 카운슬러와 個人的 問題를 相議하고 싶다고 한 反應의 結果와 比較하여 보면, 서로 어긋난다.

아름든 간에, 高等學校 過程에서는 入試準備에만 沒頭한 나머지, 자칫하면 많은 問題를 안은 青年期의 相談指導活動이 疎忽해 지기 쉬운데, 大多數의 學生들이 相談室을 利用했다는 經驗의 反應은 本道의 카운슬러의 影響이 個個人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겠고, 앞으로 相談指導 活動의 展望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學生들의 카운슬러의 役割에 대하여 認識된 點을 勘案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學生指導를 위하여 學生·카운슬러가 相互協助할 수 있고 信賴할 수 있는 方法과 指導 方案이 自體內에서 講究되어야 되겠다.

學部別로 보면, “한번 있다”는 反應은 農學部가 높고, “여러번 있다”는 反應은 水產 學部가 보다 높다.

5. 課外活動에 關한 問題

이 問題領域에서는 앞으로 크립活動에의 參加與否와, 앞으로 參加하고 싶은 크립活動의 領域等을 中心으로 그 내용을 包含시켰다.

(1) 앞으로 크립活動에의 參加與否

앞으로 크립活動에 參加하겠느냐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5-1>

앞으로 크립活動에의 參加與否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참가하겠다		62.7	64.9	52.5	61.4
참가하지 않겠다		9.3	12.3	12.5	10.7
아직 생각한바 없다		27.9	21.1	35.0	27.4
무응답			1.8		0.5
N		118	57	40	215

<표5-1>에 依하면 앞으로 크립活動에 “參加 하겠다”가 61.4%인 132명으로서 肯定的·積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參加하지 않겠다” (10.7%)와 “아직 생각한바 없다” (27.4%)를 合한 38.1%인 82명이 否定的·消極的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農學部 (64.9%)의 學生들이 크립活動에의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는데, 이러한 傾向은 法文學部の 學生 (62.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反面, 水產學部の 學生 (47.5%)들은 消極的·未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이 보다 높은 傾向이다.

入試工夫等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高校生活에서 餘有있는 大學生活로 바뀌어진 이들에게 健全한 餘暇善用, 課外活動을 하게 하는 것은 自身들의 內面的인 成長, 個性의 發揮, 趣味의 培養, 潤澤한 大學生活를 꾸며 나가는데 좋은 活力素가 되리라 믿는다.

(2) 앞으로 參加하고 싶은 클럽活動

萬一 앞으로 클럽活動을 한다면, 어느 클럽에서 活動하고 싶은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5-2> 앞으로 參加하고 싶은 클럽活動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학술연구		25.0	24.2	31.0	25.8
사회봉사		24.2	22.7	16.7	22.5
종교활동		13.6	12.0	11.9	12.9
음악활동		8.3	15.2	4.8	9.5
미술활동		0.8			0.4
체육활동		15.9	7.3	4.8	11.7
단순한 친睦		7.5	13.6	21.4	11.7
기 타		4.5	4.5	9.4	5.4
N		132	66	42	240

※ 合計가 많은 것은 二重 對答者가 있기 때문이다.

<표5-2>에 依하여 新入生들의 클럽參與 與否를 不問하고, 앞으로 그들이 參加할 클럽 活動의 範圍를 全體의으로 보면, 첫째 “學術研究” (25.8%)에 比較的 많은 參與意識을 갖고 있고, 둘째 “社會奉仕” (22.5%), 셋째 “宗教活動” (12.9%), 넷째 “體育活動” “單純한 親睦” (11.7%)의 順位로 活動領域이 나타나고 있다.

學部別로 보면, 法文學部の 學生들은 첫째 “學術研究” (25.0%), 둘째 “社會奉仕” (24.2%), 셋째 “體育活動” (15.9%), 넷째 “宗教活動” (13.6%)에의 順位로 參與意識을 나타내고 있고, 農學部の 學生들은 첫째 “學術研究” (24.2%), 둘째 “社會奉仕” (22.7%), 셋째 “音樂活動” (15.2%), 넷째 “單純한 親睦” (13.6%)의 順位로 나타나고, 水産學部の 學生들은 첫째 “學術研究” (31.0%), 둘째 “單純한 親睦” (21.4%), 셋째 “社會奉仕” (16.7%), 넷째 “宗教活動” (11.9%)에의 順位로 參與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클럽活動에의 參與順位가 學部에 따라 달리함은 勿論, 活動範圍의 特性을 달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즉, 法文學部는 보다 “社會奉仕” “體育活動”에, 農學部는 보다 “音樂活動”에, 水産學部는 보다 “學術研究” “單純한 親睦”에 높은 參與意識의 傾向은 學部에 따라 活動範圍를 달리하고 있는 것인바, 이에따른 課外活動의 指導方案

이 摸索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 指摘하고 싶은 것은 奉仕活動에도 2割以上の 學生들이 關心과 參與意識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最近 大學生들이 現實的이고 切利的이라는 批判과는 달리, 學問研究와 함께 社會奉仕를 증거하는 그들의 健全한 精神的인 次元을 높게 評價해 주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모든 크립活動은 社會奉仕活動을 通하여 그 目的이 實現되도록 努力해야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地域社會開發에 寄與하는 大學으로서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바이다.

6. 通學에 관한 問題

여기에서는 學生들이 어디에서 通學하고 있는나의 問題를 內容으로 했다.

(1) 通學은 어디에서

學生은 지금 어디에서 通學하고 있는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6-1> 通學은 어디에서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자기집		48.3	47.4	25.0	43.7
하숙집		6.8	12.3	22.5	11.2
자취		32.2	33.3	42.5	34.4
아르바이트		4.2	1.8	2.5	3.2
친족		6.8	3.4	2.5	5.1
기타		1.6	1.8	2.5	1.9
무응답				2.5	0.5
N		118	57	40	215

<표6-1>에 의하여 全體的으로 보면, “자기집”이 43.7%로 가장 많고, 다음이 “自炊”가 34.4%, 그리고 “下宿집”이 11.2%의 順位로 나타났다. 學部別로 通學關係의 順位를 보면, 法文學部는 첫째 “자기집” (48.3%), 둘째 “自炊” (32.2%)의 順位로서 “자기집”에서 通學하는 學生이 다른 學部보다 많고, 農學部도 亦是 法文學部와 비슷한 順位와 比率를 나타내고, “자기집”에서 通學하는 學生이 많다. 그리고 水産學部는 이와 달리 첫째 “自炊” (42.5%), 둘째 “자기집” (25.0%), 셋째 “下宿집” (22.5%)의 順位로 다른 學部보다 자기집에서 通學하는 學生이 가장 적다.

위에 나타난 事實로 推察하건만, 現在 新入生中 “자기집”에서 通學하는 學生을 除外한

(2) 우리나라의 將來

學生은 우리나라의 將來가 어떠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7-2> 우리나라의 將來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83.0	82.5	70.0	80.5
현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3.3	7.0	7.5	5.1
현재보다 못할 것이다		2.5	1.8	7.5	3.2
모르겠다		10.2	8.7	15.0	10.7
무응답		0.8			0.5
N		118	57	40	215

<표7-2>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將來에 대한 學生들의 見解를 全體적으로 보면, “現在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希望的·樂觀的인 見解를 가진 學生은 80.5%로 가장 많고, 다음이 “모르겠다” 는 懷疑的·傍觀的인 見解를 가진 學生으로서 10.7%, 그 다음이 “現在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로서 5.1%, 그리고 “現在보다 못할 것이다” 라는 絶望的·悲觀的인 見解를 가진 學生은 3.2%의 順位로 나타났다.

學部別로 보면, “現在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樂觀的인 見解를 가진 學生의 比率은 水産學部 (70.0%) 보다 法文學部 (83.0%), 農學部 (82.5%) 가 높다. 反面에, 希望的인 見解를 가진 學生의 比率이 적은 水産學部 (15.0%) 가 傍觀的인 見解가 약간 높다.

8. 아르바이트에 關한 問題

이 問題領域에서는 아르바이트 希望與否와 그 願하는 理由를 中心으로 한 內容을 包含시켰다.

(1) 아르바이트 希望與否

學生은 아르바이트를 希望하느냐에 對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8-1>에 의하여 보면, 全體적으로 “아르바이트를 希望한다” 는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은 77.7%인 167명이고, “希望하지 않는다” 는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은 21.9%인 47명이다.

아르바이트를 希望하는 學生의 比率은 昨年度 94.4%에 比하면, 16.7%나 減少하고 있다.

<표8-1>

아르바이트 希望與否

항 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 학 부	수산학부	전 체
희망한다		79.7	75.4	75.0	77.7
희망하지 않는다		20.3	22.8	25.0	21.9
무응답			1.8		0.5
N		118	57	40	215

學部別로 보면, 法文學部の 學生(79.7%)들이 農·水産學部(75.2%)의 學生들 보다 아르바이트를 希望하는 學生의 比率이 약간 높은 편이다.

(2) 아르바이트를 願하는 理由

그러면, 萬一 아르바이트를 願한다면, 그 理由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對한 調查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8-2>

아르바이트를 願하는 理由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 학 부	수산학부	전 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3.3	18.6	22.9	21.9
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	22.0	11.4	19.0
사회생활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15.3	15.2	14.3	15.2
여가활용을 위하여		9.5	11.9	14.3	11.0
직장생활의 경험을 갖기 위하여		6.0	3.4	2.9	4.8
자립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25.0	28.8	34.3	27.6
기 타		0.9			0.5
N		116	59	35	210

※ 合計가 많은것은 二重 應答者가 있기 때문이다.

<표8-2>에 依하여 學生들이 아르바이트를 願하는 理由는 첫째 自立精神을 기르기 위하여 (27.6%), 둘째 學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21.9%), 셋째 雜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19.0%), 넷째 社會生活의 見聞을 넓히기 위하여 (15.2%), 다섯째 餘暇活用을 위하여 (11.0%) 등 多樣하다.

學部別로 보아도, 가장 큰 理由는 全體的으로 反應이 높은 “自立精神을 기르기 위하여”가 亦是 關心이 되는 傾向이다. 이러한 傾向은 다른 學部보다 水産學部가 (34.3%) 높다. “學費·雜費를 마련하기 위하여”란 項目에 대한 反應은 法文學部 (43.1%), 農學部 (40.6%)가 水産學部 (34.3%) 보다 높다.

9. 將來의 職業問題

여기에서는 大學卒業後 어떤 職業을 憧憬하고 있는가, 또는 갖고 싶어 하는 가에 대한 說問의 內容을 包含시켰다.

(1) 大學卒業後 갖고 싶은 職業

學生은 大學卒業後 어떤 職業을 갖고 싶은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9-1>

大學卒業後 갖고 싶은 職業

항목	학부별	법문학부	농학부	수산학부	전체
정치인		1.7			0.9
행정관 (공무원)		3.4	8.7	7.5	5.5
법관		4.2	1.8		2.8
사업가 (경영주)		5.1	3.5	5.0	4.6
은행가		0.9	1.8		0.9
학자 (교수)		18.6	8.7	5.0	13.5
교사		43.2	21.0	27.5	34.4
의사 (의료원)			1.8	2.5	0.9
기술자		0.9		5.0	1.4
제리사		0.9			0.5
축산 (농장주)			12.2		3.3
언론인 (기자)			1.8		0.5
농업		0.9	1.8		0.9
실업가 (기업인)		1.7	1.8	2.5	1.9
회사원		2.0	1.8	2.5	2.3
항해사 (해운업)				25.0	4.6
사감		0.9			0.5
사회사업가		1.7	1.8		1.4
건축가		0.9			0.5
군인			1.8		0.5
원예사			1.8		0.5
국가선수		0.9			0.5
미정		0.9	8.7	2.5	3.3
무응답		11.0	19.2	15.0	13.9
N		118	57	40	215

<표9-1>에 의하여 大學卒業後 갖고져 하는 職種에 대하여 全體적으로 보면, 가장 憧

憬의 對象이 되는 職種은 “教師” (34.4%) 로 나타났고, 다음이 無應答을 除外하면 “學者” (教授) (13.5%), 그 다음이 “行政官” (公務員) (5.5%), 그리고 專業家 (經營主) 및 航海士 (海運業) 가 各各 4.6%의 順位로 나타났다.

反面, 新入生들이 憧憬의 對象이 되지않는 職種으로서는 가장 낮은 反應을 보인 “計理士”, “言論人” (記者), “舍監” “建築家” “軍人” “園藝士” “國家選手” 로 0.5%, 또는 “政治人” “銀行家” “醫師” “農業” 이 各各 0.9%의 順位로 나타났다.

學部別로 보아도, 全體의으로 反應이 높은 教師가 憧憬의 職種이 되고 있다. 法文學部의 學生들이 憧憬하는 職種의 順位로서는 “教師” (43.2%), “學者” (教授) (18.6%) 의 順位로 全體의 順位와 같고, 農學部는 “教師” (21.0%), “畜產” (農場主) (12.2%) 의 順位이고, 水產學部는 “教師” (27.5%), 航海士 (海運業) (25.0%) 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學部의 特性에 따른 職種을 憧憬하는 傾向도 엇볼 수 있으나, 亦是 全體의으로 槪頭되는 教師라는 職種이 共通的으로 羨望의 대상이 됨을 否認할 수 없다.

職種別로 보면, 法文學部 (16職種) 農學部 (15職種) 의 學生들이 水產學部 (9職種) 의 學生들 보다 甚多樣한 職種을 憧憬하는 傾向이다.

10. 本大學에 對한 要望事項

아직 充分히 大學生活을 經驗하지 못한 新入生들에게는 多少 無理겠으나, 도대체 이들이 大學當局에 對한 要望事項은 무엇인가를 알아본 結果, 全體 調查對象者 (215명) 中 49.3%에 該當하는 106명이 記述해 주었다.

그들이 言及한 面은 주로 캠퍼스 統合과 施設擴充面에 큰 比重을 두었고, 이 外에 學生活動과 教授等에 對한 要望事項도 있다. 以上의 側面을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施設 및 附屬機關

- (1) 대학 캠퍼스 統合 및 諸般 施設擴充 (67.9%)
- (2) 圖書館 藏書擴張 (0.9%)
- (3) 體育施設 完備 (2.0%)
- (4) 娛樂施設 完備 (0.9%)

B. 教授에 對한 것

- (1) 教授陳 確保 (4.7%)
- (2) 教授들의 積極的이고 誠意있는 學生指導 (0.9%)

- (3) 親熱한 紐帶關係 (2.8%)
- (4) 出講時間 嚴守 (6.6%)
- (5) 專門分野의 研究活動 (0.9%)

C. 學生 活動에 對한것

- (1) 學生들의 課外活動 獎勵 (2.8%)
- (2) 卒業後 職場保障 (7.5%)

以上과 같이 本 大學에 對한 要望事項을 3領域에서 살펴보았는데, Freshmen의 要望事項을 十分 考慮하여 失望과 期待에 어긋나지 않도록 學校當局은 勿論, 敎職員 모두가 總力을 傾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IV. 結 言

(1) 要 約

本 調査에서 밝혀진 主要 事實들을 要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가) 大學入學의 動機問題

(1) 現在 全體 調査者 中 27.4%의 學生들은 知性人으로서 人格을 갖추기 위하여, 또 25.1%는 將來 職業生活을 위한 準備을 위하여 大學에 入學하였고, 나머지 각각 13.9%는 學問研究 및 國家發展에 貢獻할 指導者가 되기 위하여 入學하였다.

나) 學科選擇의 問題

(1) 現在 1志望으로 入學한 學生은 53.7%이고, 나머지 44.2%의 學生은 2志望으로 入學한 學生이다.

(2) 現在 55.6%에 該當하는 學生은 家庭環境·將來의 職業·父母의 勸誘·高校成績·其他에 依하여 學科를 選擇하였고, 나머지 43.3%만의 學生이 自己의 興味 및 適性에 따라서 學科를 選擇하였다.

(3) 약 3割 (27.9%) 만의 學生들의 學科選擇時에 他人의 助言을 받았고, 나머지 大多數의 學生 (71.6%) 들은 助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助言의 境遇, 첫째 家族員 (38.3%), 둘째 本人 (28.3%), 셋째 敎師 (14.1%) 이다.

다) 轉科 問題

(1) 現在 轉科 (學) 를 希望하는 學生은 全體의 45.1%이다.

(2) 그리고 學生들의 轉科의 理由로서는 첫째 興味와 適性에 맞지 않아서 (45.4%), 둘째 卒業後 實用性이 적기 때문에 (13.4%) 를 들고 있다.

라) 가장 切實한 個人問題

(1) 現在 學生들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切實한 個人問題는 첫째 經濟問題 (16.1%), 둘째 將來 職業問題 (12.9%), 세째 健康 및 人間關係 問題 (11.6%) 를 들고 있다.

(2) 이러한 個人的 問題를 털어놓을 수 있는 學生은 全體의 4분의3 (74.9%) 이며, 털어놓을 수 없는 學生은 4분의1 (24.2%) 程度이다.

(3) 그리고, 이러한 自身들의 個人的 問題를 가지고 相議하고 싶은 對象은 첫째 親友 (41.5%), 둘째 指導教授 (19.2%), 세째 兄 (11.8%) 을 들고 있다.

(4) 現在 大多數의 學生들은 (69.3%) 學校 相談室을 利用한 經驗이 있고, 나머지 16.7%만이 經驗이 없다.

마) 課外活動의 問題

(1) 앞으로 클럽活動에 參加하겠다는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은 全體의 61.4%이며, 參加하지 않겠다는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은 38.1%이다.

(2) 그리고, 앞으로 學生들이 參加할 클럽活動의 範圍는 첫째 學術研究 (25.8%), 둘째 社會奉仕 (22.5%), 세째 宗教活動 (12.9%), 네째 體育活動 및 單純한 親睦 (11.7%) 에 參與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바) 通學에 關한 問題

(1) 現在 自己집에서 通學하고 있는 學生은 全體의 43.7%이며, 나머지 55.8%에 이르는 學生은 自炊·下宿·親族·아르바이트를 갖고 通學하고 있다.

사) 現實參與와 우리나라의 將來問題

(1) 現在 現實參與에 對하여 積極的이고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은 全體의 63.2%이며, 消極的이고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은 겨우 1.9%뿐이다. 그리고, 理解가 가나 行動하고 싶지 않다고 보는 學生은 22.8%이다.

(2) 現在 우리나라의 將來에 對하여 現在보다 나을 것이라라는 希望의·樂觀的인 見解를 가진 學生은 全體의 80.5%이며, 絶望的·悲觀的인 見解를 가진 學生은 겨우 3.2%이다. 그리고, 現在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라고 보는 學生은 5.1%이다.

아) 아르바이트 問題

(1) 現在 大多數 (77.7%) 의 學生들은 아르바이트를 希望하고 있으며, 나머지 2

1.9%의 學生들은 希望하고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를 希望하는 理由는 첫째 自立精神을 기르기 위하여 (27.6%), 둘째 學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21.9%), 셋째 雜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19.0%), 넷째 社會生活의 見聞을 넓히기 위하여 (15.2%)를 들고 있다.

자) 將來 職業問題

(1) 現在 學生들이 大學卒業後 갖고 싶은 職種은 첫째 敎師 (34.4%), 둘째 學者 (敎授) (13.5%), 셋째 行政官 (公務員) (5.5%), 넷째 事業家 (經營主) 및 航海士 (海運業) (4.6%) 등으로 憧憬의 對象이 되고 있다.

차) 大學當局에 대한 要望事項

(1) 現在 學生들이 大學當局에 대한 要望事項은 첫째 大學캠퍼스統合 및 諸般施設擴充 (67.9%), 둘째 卒業後 職場保障 (7.5%), 셋째 出講時間 嚴守 (6.6%) 등을 들고 있다.

(2) 提 言

本 調査에서 밝혀진 事實을 根據로 하여, 다음 같은 몇가지 提言을 한다.

1) 新入生の 올바른 大學觀 確立이 必要하다

現在 新入生調査에 依하면,全體의 27.4%의 學生들은 知性人으로서 人格을 갖추기 위하여, 또 25.1%는 將來 職業生活을 위한 準備를 위하여 大學에 入學하였고, 나머지 各各 13.9%는 學問研究 및 國家發展에 貢獻할 指導者가 되기 위하여 入學하였다.

우리는 大學의 보다 밝은 來日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大學의 機能을 現代社會 및 國家의 發展趨勢에 비추어 再檢討 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大學의 機能을 便宜上 敎育, 研究, 奉仕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考察해볼 수 있다. (4)

첫째로, 大學은 高等 敎育機關으로서 將次 學問研究에 뜻을 두었거나, 文學 藝術活動이나 科學과 工業技術을 바탕으로 하는 專門職 및 管理職이나 이에 準하는 職業에 나갈 指導의 人材를 育成하는 敎育機能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大學은 學識과 知性에 있어서 한 나라의 最高水準을 이루고, 또 꾸준히 學問研究에 沒頭하는 學者들의 自主的 共同生活體이므로 文化의 傳承에 그치지 않고 其 文化의 諸側面과 內容에 걸쳐서 새로운 境地를 開拓擴張하는 創造的인 研究機能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大學은 一次的으로는 大學이 位置한 地域社會 나아가서는 國家의 問題解決과

[註4] 朴大善 編著 大學과 國家發展, (國家發展을 위한 大學敎育의 使命, 朴大善), 敎育出版社, 1968, PP. 1~15.

福祉增進에 直接的으로 關與하고 奉仕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

大學의 機能으로서 教育, 研究, 奉仕의 세 機能을 갖고 있는 바, 新入生 指導에 있어서 는 이러한 세 機能을 充分히 認識·體得시켜 좋은 勿論, 均衡지게 遂行될 수 있는 具體的 指導方案 및 教育計劃이 再樹立되고 實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機能이 더욱 成功的으로 遂行될 수 있는 指導方案 및 教育計劃이 보다 더 強化 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在學時나 卒業後를 莫論하고 모든 分野에 있어서 研究者, 潛在的 指導者, 및 專門家 또는 準專門家로서 育成할 수 있는 길ियो, 國家發展의 計劃과 實踐에 緊要한 理論의 探求와 發展課題에 奉仕的 參與를 할 수 있는 資質을 培養하는 길 이다.

2) 轉科制度에 대한 보다 폭 넓은 合理的인 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

本 調査에 依하면, 現在 44.2%의 學生들이 2志望으로 入學했다. 現在 43.3%의 學生만 이 自己의 適性 및 興味에 따라서 學科를 選擇했고, 나머지 55.6%의 學生들은 家庭環境 · 將來 職業· 父母의 勸誘· 마음에 드는 學科가 없어 할 수 없이 選擇했다고 反應하고 있 다. 그리고 現在 45.1%의 學生들은 轉科를 希望하고 있는데, 그 理由로서는 첫째 適性 과 興味에 맞지 않아서, 둘째 卒業後 實用性이 적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특히 本 大學은 後期로서 學生을 選拔하는 以上, 個人의 興味와 適性に 맞게 들어오지 못하는 學生이 많다.

人文學科에 興味와 適성이 없는 學生이 굳이 人文學科에 入學한 들 自己自身도 效果的 인 學習能率을 올리지 못 할 뿐만 아니라, 進學한 學校의 資源도 充分히 活用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個人의 興味와 適성에 알맞는 適切한 教育指導가 없음으로 因해서 特殊分 野의 天才的 人間이 暗蔽되고 있는 境遇가 非一非再하다. 이것은 個人의 不幸이며, 크게 는 社會의 損害인 것이다. (6)

따라서, 이러한 問題로 因한 個人의 犧牲이 없도록 轉科制度를 合理的이고 效果的으로 實行하기 위한 方法의 摸索이 絕對 必要하다.

3) 高等學校 進學擔當 教師制가 더욱 強化되어야 한다

本 調査에 依하면, 大多數의 學生들은 學科選擇時에 他人의 助言을 받지 못했고, 나머 지 3割程度의 學生만이 他人의 助言을 받았다. 그리고 助言의 境遇를 보면 첫째 家族員 (38.3%), 둘째 本人 (28.3%), 셋째 教師 (14.1%) 를 들고 있다.

家族員이나 高校教師等 他人의 助言을 받지 않고 學科를 選擇하는 傾向은 일핏 생각하 기에는 바람직한 일일는지 모르겠으나, 一生의 進路에 대한 最終的인 決定을 強要當하게

[註5] 정범모(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 연구실); 일반적성분류검사 검사법요강(중·고·대·일 반응), 코리안테스팅, 1969, PP. 35~36.

되는 重大한 高校卒業班에서 學生들의 適性·興味·能力·人性等を 教師·父母와의 意見 交換없이 자칫 職業 및 學科를 잘못 選擇하면, 一生 돌이킬 수 없거나, 아니면 後의 生活에 Handicap을 지닐 可能性이 甚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高校進學擔當教師는 보다 넓은 職業情報 (Vocational information) 를 紹介해 줌은 勿論, 學生本人과 父母와 教師가 三位一體가 되어 相互 充分한 理解와 協力으로 進路指導에 臨해야 할 것이다. 進路選擇은 本人自身이 最終 決定하되, 그 過程에서 父母와 教師의 親切한 指導助言이 必要하다고 믿는다. (1)

4) 씨름 및 크립活動을 積極 獎勵하여 보람있는 大學生活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本 調査에 依하면 全體의 3分の2의 學生들은 앞으로 크립活動에 參加하겠다는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나머지 3分の1은 參加하지 않겠다는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고있다.

教育은 個人을 指導하여 그 人格을 完成시키는 個人的 側面과, 同時에 社會人 市民으로서 共同生活에 必要한 資質을 育成시키는 社會的 側面에서 指導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크립活動은 이 두 側面을 充分히 發揮시키기 위한 學生의 興味欲求에 根據를 가진 目的的 特別教育活動이다. (2) 이러한 크립活動을 通하여 個人的 興味를 發展시키고, 豊富한 趣味와 人間的인 心情을 培養하려는 것이 크립活動의 本質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學習活動과 크립活動과의 Balance를 取할 수 있는 理性的인 批判 精神의 뒷받침이 되는 知性을 길러줌은 勿論, 指導教授의 積極的인 關心과 指導下에서 그 本來의 크립目的達成을 위한 方案이 樹立實踐되어야 한다.

이럴 때 學生들은 大學生活을 豐饒하고 보람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指導를 通하여 우리는 學生들을 理解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의 問題를 事前에 防止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바이다.

5) 모든 크립活動이 社會奉仕活動을 通하여 그 目的이 實現될 수 있는 指導方案이 樹立 實踐되어야 한다

本 調査에 依하면 앞으로 學生들이 參加할 크립活動의 範圍를 보면, 첫째 學術研究, 둘째 社會奉仕, 셋째 宗教活動, 넷째 體育活動 및 單純한 親睦을 들고 있다.

學風助成을 위한 一調査研究에 依하면, (3) 씨름의 意義가 “專門的 素養의 開發, 人間關係를 通한 相互協力과 指導性的인 訓練, 多樣스러운 餘暇善用과 폭넓은 教養의 蓄積” 이란 名分에서는 크게 離脫한체 「教養과 親睦」이라는 좁은 範圍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註6] 金在高; 進路指導을 위한 調査研究, 韓國가운슬러協會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研究誌 第3號) 1966, PP. 29~33.

[註7] 金容基, 現代 學習指導法, 淸文閣, 1956, PP. 176~179.

[註8] 學生指導 第Ⅱ輯; 學風助成을 위한 一調査研究, 友石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0, PP. 19~20.

서 自我의 增大를 出發線으로하여 國家社會에 무엇인가 寄與해 보려는 奉仕의인 色彩는 貧弱하다고 指摘한 바 있다.

大學은 知的인 觀點에서는 文化圈을 超越한 諸學問의 集結體이지만, 그것을 媒介로 한 教授와 學生들이 하나의 共同生活體를 이루는 곳으로 國家社會의 一部分을 構成하는 社會的인 機構이므로 大學體制는 그것의 基盤인 國家社會와 分離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大學의 機能에서도 狹한바와 같이, 大學은 一次的으로는 大學이 位置한 地域社會 나아가서는 國家의 問題解決과 福祉增進에 直接的으로 關與하고 奉仕할 때, 이는 從來의 現實과 遊離된 學問의 象牙塔의인 性格에서 벗어나는 길ियो, 地域社會開發에 積極 參與하는 大學의 奉仕的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奉仕的 機能은 現代社會는 그 어느때 보다도 切實하게 要請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6) 友人과 사귄 수 있는 機會를 폭 넓게 提供함이 바람직하다

本 調査結果에 依하면, 現在 學生들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切實한 問題를 솔직히 吐露 할 수 있는 對象으로서 親友(41.5%)를 제일 많이 들고 있다.

우리는 交友의 機能으로서 다음 세 機能으로 나누어 考察해 볼 수 있다. (9)

첫째, 人格形成上의 役割이다.

兒童期の 交友關係는 青年期和 달라서 主로 힘의 原理에 依해서 支配되고 對立, 競爭的이고, 또 交友의 變動도 頻繁하다. 여기에 대해서 青年期는 相互間의 人格의 接觸에 依한 人間으로서의 眞實한 交友關係가 始作된다. 다시 말하자면, 어린이 時節은 相對便을 自己가 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보는데 대해서, 青年期에서는 友人을 보다 人格的인 存在로서 對하게 된다. 즉, 物的인 give and take에 依해서 均衡을 取하는 兒童 및 成人의 交友關係가 아니라, 人格的 結合에 依하는 友情關係와 奉仕의 關係가 이루어 진다.

이러한 交友關係의 特質은 家庭에 있어서의 上下·垂直的인 對人關係와는 달리, 平等한 水平的인 人間關係를 原則으로 하고 있는 限, 友人關係를 通해서 社會的 適應에 必要한 知識과 技術과 態度等を 배우게 된다. 이런 點에서 볼 때 家庭이 社會人 形成을 돕는 第一段階의 場所라고 한다면, 友人集團은 그 第二段階의 場所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情緒的 解放으로서의 役割이다.

青年의 交友는 人格의 接觸에 依해서 人格形成이 이루어지는 同時에, 內面的 苦悶의 解決을 도와주는 手段이기도 하다. 즉, 父母와의 關係가 稀薄해지고 信賴關係도 弱해지므로 해서, 그들은 누군가가 相談의 相對者를 希求한다.

青年期 初期부터 그들은 性的 成熟에 따르는 不安感 및 過渡期的 社會的地位 (Social

[註9] 鄭寅錫 著, 青年心理學, 載東文化社, 1970, PP. 184~205.

Status)의 不安으로 부터 安定에 대한 強烈한 欲求를 갖게 되는데, 이 欲求를 다름아닌 友人을 通해서 充足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共通的인 問題를 理解하고, 서로 多情스럽게 依支하면서 對話하고 同情하고 勇氣와 自信을 줄 수 있는 眞實한 友人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交友關係를 通해서, 그들은 때와 곳을 超越해서 人生을 論하고 政治를 論하고 戀愛觀을 論하는 등, 實로 보다 知的이고 哲學적으로 深化되어 간다.

세계, 代償의 機能으로서의 役割이다.

靑年의 交友를 볼 때, 거기에는 몇개의 親近性的의 階層이 있다. 그리하여, 그 속에는 父母에 대한 不滿의 代償이나, 또는 異性에 대한 代償으로서의 交友生活이 있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특히, 그 典型的인 것으로는 異性과의 交際의 補償(Compensation)으로서의 「同性愛」(Homosexuality)의 形態를 들 수 있다.

交友의 機能으로서 세 機能을 갖고 있는 바, 우리는 交友指導에 있어서 그지 一方的으로 善良한 友人을 찾아서 거기에 接觸만 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重要的 것은 善良한 友人들을 發見할 수 있는 眼目を 길러서 自立的으로 選擇하고, 深淺各層의 交友들과도 矛盾葛藤되는 일이 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廣範하게 交際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줄 수 있도록 指導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本人 스스로가 훌륭한 友人이 될 수 있는 資質을 기르도록 努力해야 될 것이다.

7) 學年 擔當 指導教授制, 특히 1學年 擔當 指導教授制가 더욱 強化되어야 한다

本 調査에 依하면 自身들의 複雜한 個人的 問題가 생길 때 마음놓고 相議하고 싶은 對象으로서 全體의 2割 程度가 指導教授를 들고 있다.

보다 바람직한 大學生活을 學生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學生과 教授와의 接觸을 通하여 大學生活에 必要한 새로운 情報나 知識을 提供할 뿐만 아니라, 個人的 適應을 增進하기 위하여 學年 擔當 指導教授制가 實施되어 오고 있다.

入試工夫로 무겁게 짜여진 高等學校 生活에서 餘有있는 大學生活으로 生活環境(Life Environment)이 바뀌어진 新入生들에게 있어서는 點數에서 學點, 男女共學, 自律性, 餘暇善用, 專攻問題, 人間關係 및 將來 進路問題等 솔한 問題에 當面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未知의 不安定한 狀況에 놓인 그들에게 指導教授와의 個人的인 接觸으로 인한 하나 하나의 問題解決에의 助言指導는 救援의 손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教授와의 個人的인 接觸이 大學에서 學生들의 學問的인 研磨나 人格的인 研磨에 直接的인 影響을 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教授와 學生間의 對話의 길을 트고 相互間的 理解와 紐帶를 強化하기 위한 方法의 摸索이 있어야 할 것이다. (10)

(註10) 崔正薰外; 大學생활 개선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延世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0, pp. 98~101.

8) 寄宿舍 新設을 勸獎한다

本 調査 結果에 依하면 全體 學生들中 43.7%의 學生은 自宅에서 通學하고 있고, 나머지 55.8%의 學生들은 自宅外의 自炊, 下宿, 親族, 아르바이트를 갖고 通學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寄宿舍만 있다면, 現在의 自宅外의 自炊生을 相當히 吸收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下宿生도 相當數를 吸收할 수 있으리라 본다. 學生들을 安着시킴으로써 學業生活에 더욱 熱中케 하고, 또한 學校當局으로서도 좀 더 親近해지고 積極的으로 指導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것으로 期待되는 바, 寄宿舍 施設의 新設을 勸獎하는 바이다.

9) 副職幹旋에 積極 努力해야 할 것이다

本 調査結果에 依하면, 現在 學生들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切實한 問題로서 經濟問題를 첫번째로 들고 있다. 그리고, 또 現在 大多數의 學生들은 아르바이트를 希望하고 있는데, 그 理由로서 첫째 自立精神을 기르기 위하여, 둘째 學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셋째 雜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넷째 社會生活의 見聞을 넓히기 위해서다.

經濟的으로 貧困한 本校의 學生들에게 經濟的 援助를 提供해 주기 위한 副職幹旋問題는 다만 學生指導研究所의 任務로만 認識할 것이 아니라, 學校當局은 勿論 全 敎職員이 積極的인 關心과 努力을 기우려야 할 問題이다.

家庭敎師는 勿論 出版物 矯正, 各種 調査活動에서의 調査員, 時間制 勞動等 學生들의 能力으로 充分히 할 수 있는 副職이 適切히 幹旋된다는 것은 그들의 心的 苦痛을 덜고 學業에 熱中케 하고, 또한 自立精神을 기르고, 社會生活의 見聞을 넓히는 등 大學生活을 多樣化하게 하는 手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副職幹旋을 통하여 學生들과 前에 없이 親近해 지는 機會를 갖게 될 것이다.

10) 올바른 職業觀을 갖도록 助言指導해야 할 것이다

本 調査 結果에 依하면, 現在 學生들이 大學卒業後 갖고 싶은 職種은 첫째 敎師, 둘째 學者(敎授), 셋째 行政官(公務員), 事業家, 및 航海士 등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다. 즉 人文系統을 憧憬하는 傾向이다.

地位와 收入이 높은 職業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成熟한 사람의 特徵은 아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信念을 갖고 꾸준히 努力하면 반드시 補償을 받는다는 生活理念이 必要하다.

그런데, 이 職業의 選擇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個人的 職業的인 適合性(Vocational fitness) ((1)能力的 要因, (2)人性的資質, (3)身體的 條件, (4)職業的 興味, (5)家庭環境的 要因)을 考慮해서 거기에 一致된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助言指導하여야 할 것이다.⁽¹¹⁾ 이 職業的 適合性에 대한 理解와 職業에 대한 理解는 勿論, 兩者의 合理的이고 調和된

(註11) 李榮鎧·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敎學圖書株式會社, 1964. PP. 175~181.

關連성을 찾아서 그 統合을 이룰 수 있는 相談指導가 必要하다.

이러한 相談指導가 이루어 질 때, 바람직한 職業的 適應을 도울 수 있음은 勿論, 앞으로의 職場內의 對人關係나 個人的 精神衛生에도 놀랄정도의 影響力을 갖게 될 것이다.

職業을 갖기는 가졌지만, 能力과 適性에 맞지 않는 職業을 가지고 있는 關係로 因해서 能率의 低下는 勿論 安定된 職業意識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런 狀態에 놓여 있는 사람을 不安定한 <潛在失業者>라고 한다. 自己 職業에 대한 志向性이 없거나, 職業에 대한 安定感을 느끼지 못한다면, 職業에 대한 充實도 있을 수 없거니와 生活目標도 確立될 수가 없다. 生의 뚜렷하고도 意慾的인 目標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自然히 生活意識도 動搖되기 쉽고, 衝動的이고 官能的인 刺戟만을 追求하는 惡性 消費生活에 몰려버리기 쉽다. 이 惡性消費生活은 自然히 各種 犯罪의 溫床이 된다는 點에서, 職業의 不安定이야말로 靑少年非行化의 하나의 問題點이라 아니할 수 없다. (12)

11) 強力한 獨立과 主體의 精神을 涵養시켜야 한다.

本 調査 結果에 依하면 全體 學生들中 大部分은 우리나라의 將來에 대하여 希望的이고 樂觀的인 見解를 갖고 있고, 3.2%만이 絶望的·悲觀的인 見解를 갖고 있다. 그리고, 全體에 3分の2는 現實參與에 積極的·肯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1.9%만이 消極的·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大多數의 學生들이 우리나라의 將來에 대하여 希望的인 見解를 갖고 있으면서도, 現實參與에 대하여 한번도 經驗해 본 일이 없는 新入生들이 이처럼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는 것은, 獨立과 主體의 精神이 貧弱한 탓이라 볼 수 있다.

大學生들에게 必要한 것은 그들이 在學時나 卒業後를 莫論하고, 獨立의 精神을 갖고 自己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方向으로 自己自身에 充實하도록 獨立과 主體의 精神을 기르게 하는 일이, 바로 自身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大學生의 現實參與를 抑制하거나 或은 이를 放任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目標를 달리하여 그들에게 自己 스스로의 主觀을 세우고 自己길에 專念할 수 있도록 自立的, 自主的, 主體的인 精神만 길러 준다면, 그것이 어떤 感情에 呼訴하는 集團的인 行動은 되지 못할 것이다. (13)

따라서, 大學生들에게 強力한 主體意識과 獨立의 氣魄을 스스로 體得케 하고 行動할 수 있도록 그 精神을 促進시켜주는 指導方案의 摸索이 必要하다.

13) 大學캠퍼스 統合과 教育活動을 위한 施設擴充이 時急하다.

本 調査 結果에 依하면 大多數의 學生들이 大學캠퍼스 統合 및 諸般 施設擴充을 要望

〔註12〕 鄭寅錫 著, 上揭書, P. 241.

〔註13〕 朴大善 編著, 上揭書, (韓國大學生의 主體意識과 現實參與의 問題點, 尹泰林), PP. 125~137.

하고 있다.

本大學은 캠퍼스가 濟州市와 西歸邑으로 分散되어 있기 때문에 學生의 通學問題, 教授의 出講問題, 實驗實習의 問題等 敎科課程의 運營面에서나, 行政上의 運營面에서 적지 않은 隘路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大學 캠퍼스가 統合되고 있는 現 趨勢에 비추어, 보다 能率的이고 生産的인 敎育의 成果를 건우기 위해서는 캠퍼스 統合의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는 바이다.

그리고, 어느 學校나 좋은 大學의 具備條件으로서 좋은 敎授와 좋은 施設을 갖춘 大學이라 할 수 있다. 充分한 施設擴充은 學生들의 地方大學이라는 劣等感에서 救濟하여 學習意慾을 增進시키는 길ियो, 卒業後의 職業을 保障하는 길ियो, 또한 陸地部에로의 頭腦流出 (Brain-drain)의 危險性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充分한 施設擴充은 곧 地方大學을 育成하는 길이다.

參 考 文 獻

1. “學生研究” 第7卷 第1號, 서울 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9, 12.
2. “學生生活研究” 5號, 淑明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0, 9.
3. “學生指導” 第Ⅱ輯, 友石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0.
4. 崔正蕪 外 1人, 大學生活 改善을 위한 基礎 調查研究, 延世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0.
5. 鄭範謨, 一般適性分類檢査 檢査法要綱 (中·高·大·一般用), 코리안테스팅센터, 1969.
6. 朴大善 編著, 大學과 國家發展, 敎育出版社, 1968.
7. 金容基 著, 現代 學習指導法, 淸文閣, 1956.
8. 鄭寅錫 著, 青年心理學, 載東文化社, 1971.
9. 桂廣介 著, 青年心理學, 金子書房, 1964.
10. L. Cole, psychology of Adolescence, sixth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4.

[Summary]

A Survey on the Real Conditions of JNU Freshmen

By Myoung Kyu, Ko

The present survey was designed to collect basic informations about freshmen of '72, with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covering such aspects as their motives for college entrance, the department choice problem, the transfer problem, student's urgent present problem, student's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problem to go to school, student's social participation, "arbeit", student's future vocation and their wishes to the college authoritie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ere 215 students i.e., 71.2% of the total number of the freshmen.

The brief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ings :

- 1) 27.4% of the responded freshmen chose the admitted college for the cultivation of personality with intelligence, and 25.1% of them, for the prospect for vocational placement after graduation.
- 2) 43.3% of the responded students chose their major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 3) 27.9%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s of being advised in choosing the departments, 38.3% of them were advised by their family members, 28.3% by their own will, and 14.1% by their high school teachers.
- 4) 45.1% of the students expressed wishes to be transferred to other departments, when possible. Major reasons were that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are not suitable for the admitted departments.
- 5) The most urgent problem of them was the economic problem, next was their future vocation, and third, their health and human relation.
- 6) 61.4% of them insisted to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 7) 43.7% of them were those who go to college from their homes.
- 8) 63.2% of them expressed positive attitude toward social participation, and only 1.9% of them showed negative.
- 9) Most of the students want to have "arbeit". Because the major reasons are: that they cultivate their spirits of independence and they earn their school expenses.
- 10) After graduation, 34.4% of the responded students want to be teachers, and 13.5% professors.
- 11) Most of them want a unified campus which has laboratory rooms and various audio-visual equipments.